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Vol. 19 / **2020. Autumn**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그토록 바라던 코로나19가 종식됐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던졌고
벼르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도 예매했다.
올가을 호황을 맞은 세계 경제.'
아직은 한낮의 꿈같은 이야기.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우주가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WORDS. 박영화

발행일
2020년 9월 5일

Publish
IBK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Contents

2020 — AUTUMN
Vol. 19

04 **SPECIAL COLUMN** 동학개미운동을 아시나요?
08 **ISSUE & FOCUS 1** 임대차 3법 시행과 임대차 시장 변화
12 **ISSUE & FOCUS 2** 세종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인가?
16 **GLOBAL REPORT** 본격 막이 오른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변화
20 **SUCCESS PARTNER** 중계동WM센터 고객사 ㈜엠케이아이엔에스
22 **RICH KNOWHOW** 가업승계 시 절세전략
26 **INVESTMENT** 2020년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0 **CULTURE SPACE**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 '괴산 & 포항'
34 **LIKING TRAVEL** 상상하는 모든 것이 펼쳐지는 동화 속 나라 '오스트리아'
40 **CONSOLATION OF BOOK** 우리 좋은 것만 상상해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42 **IBK FUND** IBK 추천 펀드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 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을 아시나요?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2020년에 다시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빗대 표현한 신조어 '동학개미운동'. 올해 한국 증시의 주인공인 개미투자자들은 하반기에도 그 위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빚투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과열 투자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WORDS. 김제림 매일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동학개미운동은 3월 폭락장에서 코스피 우량주를 둘러싸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매물들을 개인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로 받아낸 상황에서 온 신조어다.

맹활약 중인 동학개미들

지난해 말 나온 올해 코스피 전망은 대부분 상고하저였으며 코스피 밴드 상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곳은 메리츠증권으로 2,500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코스피는 1,400선까지 위협받으면서 올해 전망들은 당연히 공수표가 되는 듯했으나 오히려 3월 20일 저점 1,457선까지 내려간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8월 11일 2,400선을 넘어섰다. 다시 코스피가 반년도 안 돼 60%가 넘게 오른 데에는 '동학개미'라는 별칭을 얻은 개미투자자들이 있었다.

동학개미운동은 3월 폭락장에서 코스피 우량주를 둘러싸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매물들을 개인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로 받아낸 상황에서 온 신조어다. 1894년 반봉건·반침략을 목표로 일어난 농민들의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온라인상에선 동학개미운동을 '대한민국 건국 101년(2020년)에 개인투자자가 중심이 돼 일으킨 반기관·반외인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동학개미운동은 처음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쏟아내는 매도를 힘겹게 받아내는 개인투자자의 모습을 자조하면서도 응원하며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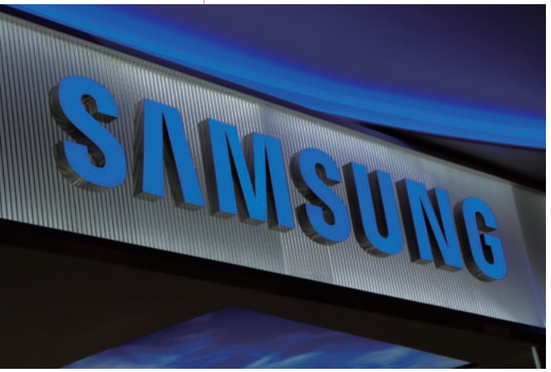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결국은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은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꾼 원동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기관과 외인에 결국 당하기만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라졌다. 4월 초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 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과거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실패한 이유는 주식을 비싼 값에 샀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동학개미들은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한 만큼 성공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미의 진화, 코스피를 끌어올리다

동학개미운동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6월 발표된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2023년 양도세를 부과하며 기본 공제를 2,000만 원으로 발표했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투자자의 의욕 꺾지 마라"고 하면서 결국 기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주식형 펀드 포함)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9월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시한을 앞두고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가 그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처음 저가매수에서 시작했던 동학개미운동은 증시가 2,400선을 넘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개인투자자들은 46조 원(8월 10일 기준)을 매수했다. 연 초에 비해 이미 10%가량 오른 증시 수준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기대를 가진 것은 증시 대기 자금의 규모로 알 수 있다.

동학개미운동이 우량주 저가 순매수로만 간 것은 아니다. 3월엔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를 매수했으나 4월엔 곱버스, 5월엔 원유 레버리지 ETN, 6월은 우선주, 7월은 제약 및 진단키트 테마주로 옮겨 다니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은 49조 원에 이른다. 올 초 30조 원에 불과했는데 46조 원의 주식을 순매수하고도 오히려 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8월 10일엔 2,350선이 넘은 코스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3,523억 원을 매수해 증시를 1.48% 끌어올리기도 했다.

증시 유동성을 키운 요인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 변화와 은행 예금금리 하락, 부동산 규제 등이 있다. 예금금리가 최근 0~1%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예적금을 통한 재테크는 어려워졌다. 그동안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항상 재테크 수단에서 선순위였으나 최근 각종 대출규제와 세금 강화로 상황은 달라졌다. 취득세 및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대 세후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증시에 2030세대를 비롯해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됐다.

동학개미운동이 우량주 저가 순매수로만 간 것은 아니다. 3월엔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를 매수했으나 4월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동학개미들은 4월엔 곱버스(2배 인버스 ETF), 5월엔 원유 레버리지 ETN, 6월은 우선주, 7월은 제약 및 진단키트 테마주로 옮겨 다니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엔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몇 개가 출렁거렸다면 올해 들어서는 증시에 유입된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개의 테마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7월 들어선 세종시 이전(남선알미늄, 계룡건설 등), 극일(모나미, 신성통상),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하루에도 동시에 주가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테마주는 유통주식수가 작고 거의 개인들만 거래에 참여하는데 최근의 풍부한 유동성에 유통주식수가 작은 우선주와 같은 주식은 충분히 테마 소재가 되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증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많은 주식들이 테마주처럼 움직이곤 한다"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학개미들의 아슬아슬한 빚투

과거에 비해 낮아진 신용거래 이자율과 상승장에 대한 기대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3월 말 6조 5,000억 원 수준이었던 신용거래융자금액은 8월 초 15조 원으로 넉 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의 신용공여율(신용으로 투자한 주식 대비 전체 주식거래액의 규모)은 20%가 넘으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특히 밸류에이션과 상관없는 투자는 투자 리스크를 높인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원유레버리지ETN 순매수가 활발했던 5월에 증권사에서는 현재 ETN 주가가 실제가치(IIV)와 괴리되어 고평가 상태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광풍을 막지 못했다. 결국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가격은 5월 초 주가에서 반토막난 동전주 상태다.

이와 같은 동학개미들의 변신을 두고 올 초에 상승장에서 우량주 위주로 접근한 개인투자자들이 결국은 주가가 기대한 것만큼 빨리 오르지 않자 상승 속도가 빠른 곱버스, 원유ETN, 우선주, 테마주 등으로 몰리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특히 순매수가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개인투자자들의 고위험 투자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거래대금 상위 1~5위는 KODEX200선물인버스2X(24조 원), KODEX레버리지(17조 7,443억 원), 삼성전자(15조 9,388억 원), 씨젠(14조 9,016억 원), 셀트리온(6조 5,644억 원)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수에 단기 베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대형주들이 거래대금 20위권에 드는 등 우량주의 거래도 컸다.

7월 되어서는 거래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및 진단키트주, 지수 ETF가 차지했다. 신풍제약이 15조 8,184억 원이었고 씨젠이 15조 3,186억 원, KODEX200선물인버스2배 ETF가 8조 6,326억 원, SK바이오팜이 8조 2,347억 원이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7조 5,000억 원, 카카오는 7조 4,000억 원으로 제약 및 진단키트주에 훨씬 못 미쳤다. 7월 한 달간 신풍제약은 128%, 씨젠 130%, 랩지노믹스 142%, 신일제약 123% 등 해당 업종들이 큰 폭으로 오르자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일단 가격 상승만을 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공격적 매수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올 초 안전마진과 기업 펀더멘털을 믿고 투자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는 대출을 통해 고변동성의 고밸류에이션 주식에 고빈도로 투자하는 위험한 투자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부장은 "스마트개미, 동학개미 등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높이 평가해왔지만 저평가 우량주를 투자하더라도 다른 가벼운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면 당장 거기로 갈아타는 행태는 반복되어 왔다"며 "한두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해야 투자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WIN CLASS

7월 되어서는 거래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및 진단키트주, 지수 ETF가 차지했다.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시행과 임대차 시장 변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과 세금 부담 강화 등으로 집주인의 수익성이 줄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세 물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WORDS.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받도록 하되,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12월 10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기간 내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의 제한에 따라 일부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등 당장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임대차 시장 현황

지난 8월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전세 가격도 5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고가다. 반전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임대인이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은 전세 물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아파트 반(半)전세 가격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13일까지 총 1,929건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중 242건인 12.54%가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품귀로 임대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집주인이 저금리 기조에 조세 3법 등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세에 추가로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선회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임대차 3법 시행과 조세 3법 시행으로 전세의 반전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전세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번 상승한 전·월세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대표적인 서민주택시장인 연립·다세대주택시장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면서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외국의 임대차 제도

정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이유로 외국 여러 나라가 이미 임대차 갱신제도와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임대차 제도를 알아보자.

첫째, 미국은 주별로 임대차 관련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규제가 가능한 주는 전면시행이 아니라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캘리포니아 등이다. 뉴욕주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료는 1947년부터 1974년 사이에 지어진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시세 이하로 월세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1988년 제정된 주택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다르다. 주택법 시행 이전의 임대차 계약은 독일, 프랑스와 비슷하게 세입자가 보호를 받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연장이 결정된다. 법원은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경우,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계약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 최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한이 없는 계약 관계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만 있다면 종신계약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결정된다.

넷째,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은 세입자가 일반인인 경우 최소 3년, 법인인 경우 최소 6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료의 증액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해서 기준임대료지수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다섯째, 일본은 2년 단위 월세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건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들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어 처음부터 세입자를 매우 까다롭게 고른다.

정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이유로 외국 여러 나라가 이미 임대차 갱신제도와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그러나 외국이 임대차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 지역마다 적용이 다르고 인상률 규제와 임대기간 역시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자칫 잘못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제약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외국의 임대차보호 관련 법률들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특성과 문화·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과 시행방법이 달라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난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당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전세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보다 낮다보니 임대료를 규제하면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임대주택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전세는 줄고 월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조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전세의 반전세, 월세의 가속화는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임대차 3법의 시행은 시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오래 거주하게 됨에 따라 서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집주인에게는 임대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의 등락을 방지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며, 4년 동안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따르므로 4년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기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규제가 지속되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질적 하락을 불러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꼭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임대차 시장을 고려해 임대인도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시행 초기 문제점이 발생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WIN** CLASS

임대차 3법에 시행 초기 문제점이 발생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SEJONG CITY

세종특별자치시

면적	인구(2020년)
465.23㎢	346,217명

세종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인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과 수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최선의 선택일까?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WORDS.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는 세종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1일자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세종시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 연령은 36.8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현재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시·도는 세종을 포함해 울산(38.9세), 광주(39세), 경기(39.3세), 대전(39.5세), 인천(39.9세) 등 6개 시·도뿐이다. 세종시가 이처럼 젊은 층이 많아진 이유는 인근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사례는 울산, 거제 등 일부 산업도시가 조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산업도시 중에서는 세종시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이, 2020년 올해는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계청이 1970년 이후 인구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구 유입과 유출의 역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해 온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세종시'다. 2020년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34만 명 수준으로 불과 8년 만에 인구 규모가 3.5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인구 유입 속도가 다소 주춤하게 된 데에는 역시 세종시로 인한 인구 유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 필요할까?

최근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에도 수도권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 계층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분명 나름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최근까지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젊은 계층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국가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 해결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세종시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세종시 한쪽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신세를 보고 지은 말이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부처 내지 공공기관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회 업무를

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인 '세종 대명벨리온'. 세종 대명벨리온이 들어서는 세종테크밸리는 바이오·환경·정보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하자마자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해당 국가의 공공부문의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고위 공무원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기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여타 주요 부처들과 공공기관을 추가로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 공공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세종시의 설립 초기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1단계 초기 활력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세종시는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등 정책적 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36개 중앙행정기관(18개 중앙부처본부, 18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행복 도시로 이전을 완료했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가 이전이 확정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도 추가 이전을 완료했다.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모두 세종시로 이전 완료되었다. 하지만 세종시가 단순히 행정·공공 기능에만 국한되어 발전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산업과 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은 마치 외딴섬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현실 부합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조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가 단순히 공공부문 사람들만 모여드는 공간이 아니라 민간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발전시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소프트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세종시 입주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세종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세종시에 추가로 입주하여 공공부문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사례로 들여다본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이상에서 설명한 바처럼,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 계층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유사한 이유로 출범한 행정도시인 브라질리아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세종시가 직면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

브라질은 동부 해안 중심으로 국가 발전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륙 지역인 해안에서 965km 떨어진 땅에 행정도시인 브라질리아를 건설하였다. 이는 그간 리우데자네이루시, 상파울루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밀집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브라질리아는 지난 1960년 처음 수도로 지정된 후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인구 300만 명의 큰 도시로 발전했으며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 브라질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브라질리아는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도로, 하수처리시설, 거주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관공서가 몰린 도시 중앙에만 일자리가 밀집해 있어, 출근 시간에만 유동인구가 몰렸다가 퇴근 이후 인근 침상도시로 빠져나가는 텅 빈 도시가 됐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세종시 역시 브라질리아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부분에서 세종시는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의 주요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다. 시·도 등급에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은데 반해, 세종시는 화재 및 교통사고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세종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기획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결과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면서 해당 도시의 성패가 확인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현재 세종시는 조성 초기부터 10년 정도가 흘러 절반이 지난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 프로젝트의 성패는 남은 10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기획을 도입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WIN** CLASS

본격 막이 오른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변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갈 제46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상황.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WORDS.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표 1>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특징

장점	단점
· 재생 가능	· 에너지 밀도가 낮음
·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대규모 생산지가 필요하고 삼림파괴 등이 우려
·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생태계와 조화로운 이용이 가능	· 식량과 경합할 가능성 있음
· 지구 전체 CO2밸런스 유지	· 공급에 계절성이 있음

자료 : 한국은행

트럼프의 운명과 미국 경제는 어디로

미국 국민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을 경제고통지수(MI·Misery Index)로 평가한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긴 하지만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의 마음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 신기후협약 불참, 중국과 무역마찰, 이란 핵협상 등 더 꼬인 중동 정세, 진전없는 북한과의 관계 등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도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케어와 도드-프랭크 법(단일 금융법이라고도 부른다)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성과가 컸던 핵심 정책을 지우기로 일관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핵심 정책을 복원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시절 크게 훼손된 다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던 파리 신기후 변화 협정에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힐 것으로 확실시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국제보건기구를 설립할 가능성도 높다.

기후 위기 대응, 미국 대선에 달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변화시대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야말로 생태적 대참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다. 세계는 10년마다 0.2℃씩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폭염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긴 장마와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따라서 기후환경협약을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부통령으로 근무하던 오바마 정부 시절 8년 내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회원국은 윤리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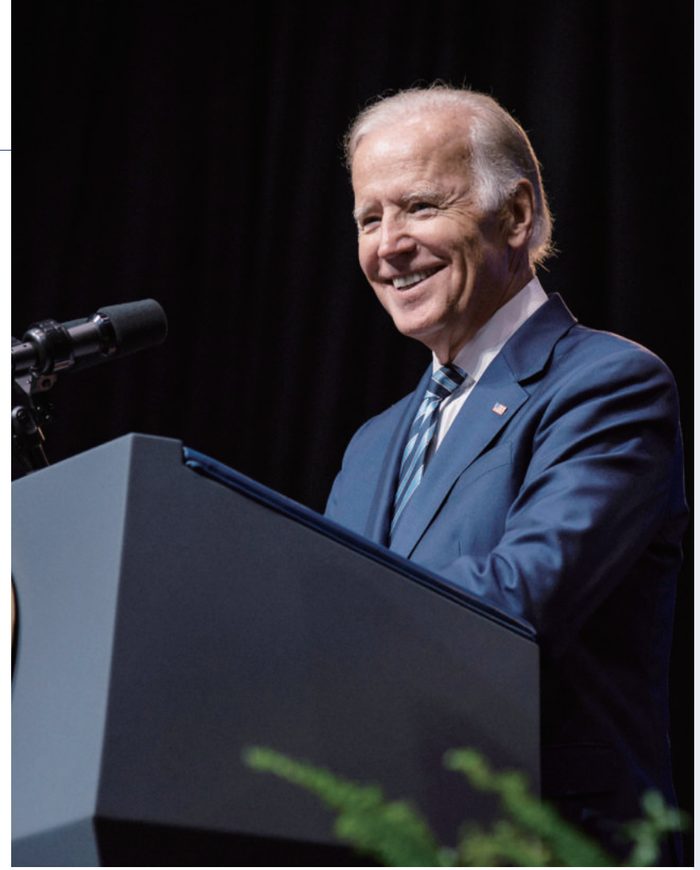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세계 각국은 대책 차원에서 '그린 성장'과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이 그 어느 과제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원자력, 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원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매스란 이상기온을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식물성 유기체를 통칭한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가 부상하는 이유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 등은 에너지원을 재배·육성해 반복 생산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성과가 컸던 핵심 정책을 지우기로 일관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핵심 정책을 복원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오바마 헬스케어'를
우선적으로 복원할
방침임을 코로나19가
악화될 때마다 대선
과정에서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달라지는 정책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최고 책무이자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근립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오바마 헬스케어'를 우선적으로 복원할 방침임을 코로나19가 악화될 때마다 대선 과정에서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취임 연설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책을 아예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정책도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쉬'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법인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의 35%로 환원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통상을 비롯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 중국에 편향적인 기조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정부 때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히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 때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소고기,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압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EPN)' 구상에 한국이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 정책은 트럼프 정부나 자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한 북한과의 미온적인 관계 설정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처럼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Strategic Patience 2.0)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인내란 경제 제재와 압력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이다.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 노선을 감안하면 양국 간 협상의 쟁점이 의외로 복잡하게 전개될 확률이 높은 것도 한국으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처럼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쌍무적인 방법보다는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UN 등과의 다자 틀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미해결 과제로 남길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문제도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터버 서프라이즈는 일어날 것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결정적인 한 방, 즉 '옥터버 서프라이즈'가 절실한 상황이다. 옥터버 서프라이즈란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달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슈거 하이(Sugar High·정치 입문생에 대한 일시적 흥분 기대) 효과'가 사라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옥터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없어 보인다. 최대 변수인 미·중 간 경제패권 마찰은 더 심화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복잡한 중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와 증시도 코로나19 사태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선 직전에 발표되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올 경우 결정적이다. 만의 하나 제2의 옥터버 서프라이즈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집권 1기 때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WIN** CLASS

만의 하나 제2의
옥터버 서프라이즈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집권 1기 때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계동WM센터 고객사

(주)엠케이아이엔에스

수처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다!

엠케이아이엔에스를 경영하고 있는 홍순태 대표에게 있어 사업은 '열정'과 '희열'의 다른 이름이다. 2003년 회사를 설립한 후 수처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홍순태 대표가 걸어온 시간 속에는 IBK기업은행과의 오랜 인연이 함께했다.

WORDS. 한율
PHOTOGRAPHS. 이정수

01

전문성으로 시작한 사업

꽃이 비바람을 견디고 오랫동안 햇볕에 몸을 내놓은 끝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일도 얼마만큼 오랜 시간을 견디며 정성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엠케이아이엔에스의 홍순태 대표는 회사를 설립한 후 성공만을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엠케이아이엔에스가 설립된 건 지난 2003년. 국내 대기업인 현대중전기(現, 현대중공업)와 영국계 회사인 유로썸(EUROTHERM)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며 수처리 분야의 노하우를 쌓은 홍순태 대표는 불투명한 미래를 타파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에 도전했다.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독일의 피닉스컨택트(PHOENIX CONTACT) 사 및 리탈(RITTAL) 사와 수처리 분야의 특별 공급권에 대해 협의할 기회가 생겼는데, 수처리 분야에 대한 제 노하우를 인정받게 돼 두 회사와 공급권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장(計裝) 분야의 최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피닉스컨택트와 리탈의 국내 지사(법인)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엠케이아이엔에스는 이들 회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 수처리 분야 사업체에 서지보호장치(SPD:Surge Protective Device)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이더넷(Ethernet) 장비 및 산업용 Cabicle의 납품·제작·설치까지를 수행하고 있다.

01. 엠케이아이엔에스 홍순태 대표와 중계동WM센터 직원들

02. 영업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중계동WM센터 직원들

03. 친절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김수영 대리

미래를 위해 도전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성급하게 받았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자금 압박을 겪었고 2010년에는 거래처의 고의 부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무렵에는 부족한 세무 상식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IBK기업은행에서 권유해준 예금 보험 등을 잘 활용한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 책임,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홍순태 대표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뢰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 때문에 홍순태 대표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고객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기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철저한 기업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혹시 모르게 발생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 비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태 대표는 엠케이아이엔에스의 경쟁력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30년간 수처리 분야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와 인맥을 갖춘 소수 정예 인원이 막강한 맨파워를 발휘하고 있기에 경쟁 업체에 비해 실력이 뛰어나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 또 소수 정예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의 대외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 있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BK기업은행과의 오랜 인연이 힘이 돼

사업을 하려면 자기관리, 전문성 등 갖춰야 할 요소가 많지만, 다양한 방면에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협업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기도 하고, 난항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에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좋은 파트너로 대해주면서 변함없는 친절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계동WM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탁월한 은행 지식과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에 힘입어 저금리 시대에도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계동WM센터는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02

03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IBK기업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홍순태 대표. 먼저 사업을 시작한 학교 선배들이나 지인들이 대부분 IBK기업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IBK기업은행과의 거래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초기에는 IBK기업은행 노원역지점과 거래를 했어요. 그때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고객 응모에 당첨되어 금돼지 한돈을 받았는데, 그때 촬영한 기념사진이 은행에 전시가 됐었어요.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돼지를 잡아 고마운 IBK기업은행 직원분들과 식사라도 한 끼 해야 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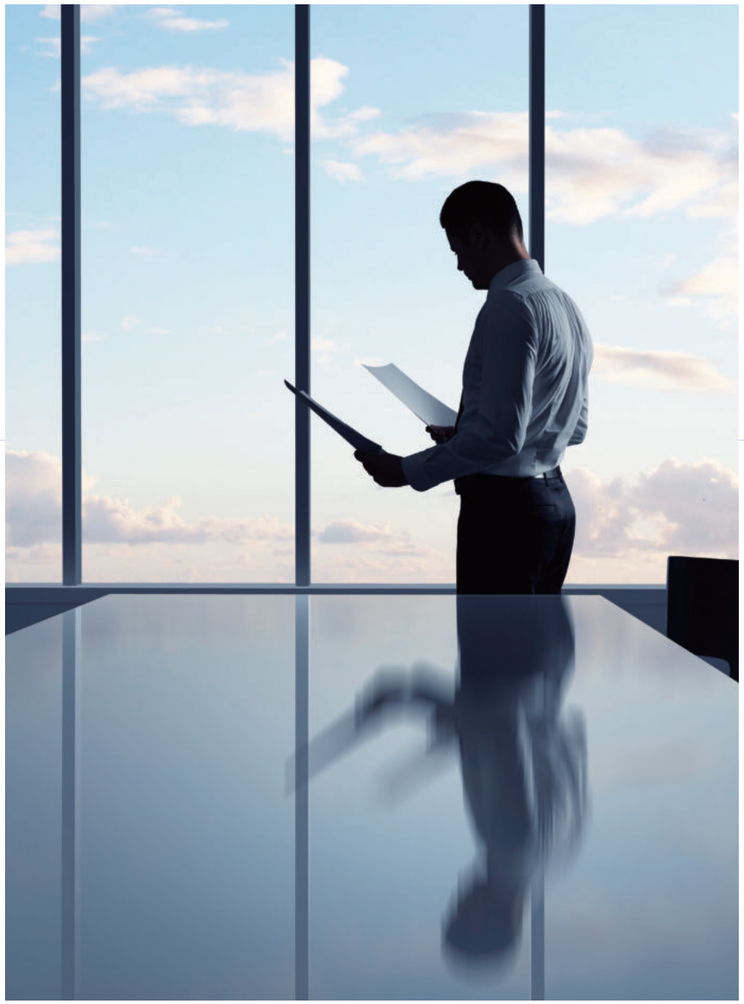
홍순태 대표의 말에 중계동WM센터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박판기 센터장은 "홍순태 대표님은 중계WM센터의 터줏대감으로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이어가며 서로의 발전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계동WM센터가 더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홍순태 대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엠케이아이엔에스를 고객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친화적인 경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내 투자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동안 닦아 놓은 전문성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적자 없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회사, 고객과 직원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다짐에 힘이 실렸다. 엠케이아이엔에스의 성장과 발전에 IBK기업은행과의 기분 좋은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본다. WIN CLASS

가업승계 시 절세전략



창업 CEO들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업승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막대한 상속세율 때문에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최대로 활용하여 승계를 준비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WORDS. 이은하 세무사

가업승계는 절차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늘 시험대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 가업승계할 때 절세방법은 CEO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사망 시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증여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먼저 증여자인 CEO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살펴보자.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해당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일반 증여세율인 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10~20%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과세가액은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령 2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경우 5,000만 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6억 2,000만 원이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는다면 일단 5억 원을 공제받고 세율도 10%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증여에 비해 4억 7,000만 원이나 증여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순순히 주는 혜택은 아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만큼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를 모두 지켜야 한다. 증여자는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로 지분 50%(상장사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하는 해당 주식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받고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도 단점이 하나 더 있다. 일반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후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반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았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다. 증여할 때 1만 원이던 주식이 사망 시점에 10만 원이 되었다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1만 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면 당장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합산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증여 이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사망한 뒤에는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상속공제' 중 하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10~20년인 경우 200억 원 한도, 20~30년인 경우 300억 원 한도,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업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음식점업은 공제가 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금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만큼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로 지분 50%(상장사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 또는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사망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만을 의미하므로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이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으로 물려받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산들은 10년 단위 사전증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상속세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다. **WIN** CLASS

2020년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경제 회복은 정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4분기는 안전자산 투자 비중의 확대를 추천한다. 또한 4분기 증시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불확실성 확대로 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안전자산으로 돌아가야 할 때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과 위험자산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미-중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불공정무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개선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4분기 안전자산의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은 후 3분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4분기에는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다. 재정과 통화 정책을 쏟아 부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였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타격이 컸던 전염병 발발 이후를 분석한 결과, 투자보다는 저축 심리가 강해졌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도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의 단기 소비진작책으로 소비가 늘어났지만 계속 재정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고 소비의 회복세는 정체될 것이다. 기업들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투자를 꺼릴 것이고, 고용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쇼어링 정책은 생산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쟁과 자연재해 등과 달리 시설물을 파괴하지는 않았으나 인적 자본에 타격을 줌에 따라 노동 생산성도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안전자산의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에 북반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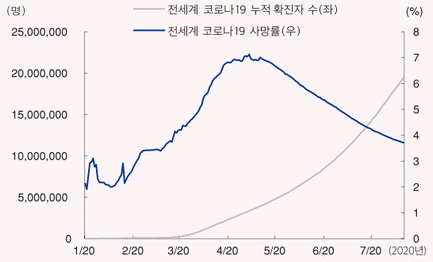
기온이 낮아지면 해당 지역의 사망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 모형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4분기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의 사망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상승하면 국가별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경기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 증시 조정에 유의

미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대선 결과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시장의 합치된 예상치)가 분분하다.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조지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트럼프의 전략적 움직임이나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실제 대선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겪었던 '샤이 트럼프'들의 재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우편투표 방식을 실시함에 따라 결과 발표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반발 등 기존에 없던 또 다른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을 비롯해 여러 주에서 우편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미국 내 전체 유권자의 70% 이상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편투표 방식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대선 일정의 연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이벤트는 역사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그림2>를 참고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의 월별 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공통적으로 9월부터 높아졌다.

그림 1.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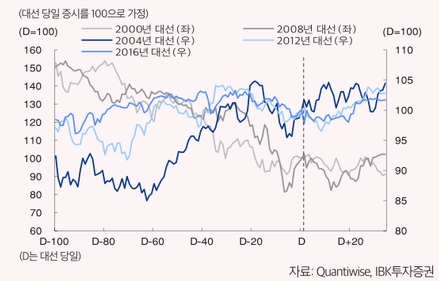
자료: WHO, IBK투자증권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전반에서 확인된다. 국내 주식시장도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영향권 안에 있었다. 미 대선 1개월 전부터 공통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으며 지수는 하락했다. 이번에도 미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대선 이후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별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코로나19로 훼손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추가 감세를, 바이든은 인프라투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불공정 무역 타개, 기술 패권 쟁탈을 위한 대중국 압박은 두 후보 모두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양국과의 교역이 중요한 국내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 변화의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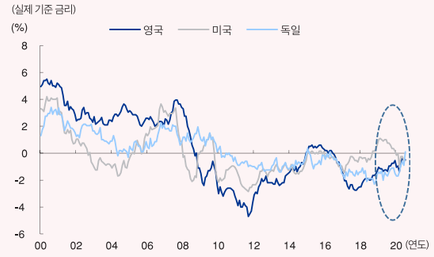
2020년은 코로나19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다. 4분기가 시작되는 지금도, 코로나19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자체의 확산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코로나의 생채기가 아물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행히 3월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방어됐다.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정말 낮다는 점이다. 이미 각국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에 봉착한 시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면 많은 국가가 마이너스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다변화됐지만, 중앙은행이 가장 손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기본 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도입은 꾸준히 선택지로 등장할 것이다.
ECB(유럽중앙은행)는 이미 마이너스 기준금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연준과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목전에 와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어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자연스레 거론된다.
코로나19 위기 초반,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방어를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3분기 들어 그러한 행보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과 영란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은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높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ECB 역시 기존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은행권 수익성에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행히 경기 둔화의 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여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미 시행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가능한 변화를 점쳐본다면, 앞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명목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실질 기준금리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실질금리 상승을 꼽을 수 있다. <그림 3>을 참고하면, 최근 각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인플레이션율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림 2. 2000년대 이후 미국 대선 전후 국내 증시 흐름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3.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질 기준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음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1) 물가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깃팅 제도):
중앙은행이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제도로 199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 현재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부분이 물가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간 물가상승률 2% 근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다.

2)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경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해 시행하기 시작.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알림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첫 포워드 가이던스로는 미국 연준이 2012년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를 달성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결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낮추거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물리적으로도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관련 수단으로는 현재 2%의 물가 목표제[1] 변경(물가 목표치 상향 또는 범위 제시 등) 및 포워드 가이던스[2] 구체화를 꼽을 수 있겠다. 현재의 2% 전후로 설정되어 있는 많은 중앙은행들의 물가 목표는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 이전에 설정된 것이다. 그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기 때문에 낮은 물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과열을 누르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 오랜 저성장·저금리의 영향으로 현재 중앙은행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파이터에 가깝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제 변경 혹은 포워드 가이던스 구체화와 같은 변화를 논의해오고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가장 많이 쓰던 기존 수단의 여력 부족과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중앙은행의 변화인 것이다. 추가 정책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가운데 빠르면 올해 4분기 내에 연준을 중심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구체화와 물가 목표제 변경, 구체적인 방향성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제 시행되고, 실질금리를 상승시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책 가이드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적어도 시중금리(=명목금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금리) 추가 하락에는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분기 이후 시중금리 상승 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WIN CLASS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혔다. 그렇다고 여행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해외 못지않게 예쁘고 즐겁고 맛있는 곳이 많다. 이번 가을 여행지로는 충북 괴산과 경북 포항을 추천한다. 책방에서 느긋한 가을을 즐기고 가을 계곡을 따라 기분 좋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WORDS+PHOTOGRAPHS. 최갑수 여행작가

01

— 01.
숲속작은책방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 02.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4km의 옛길.

— 03.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계곡으로 2014년
8월 28일 명승 제110호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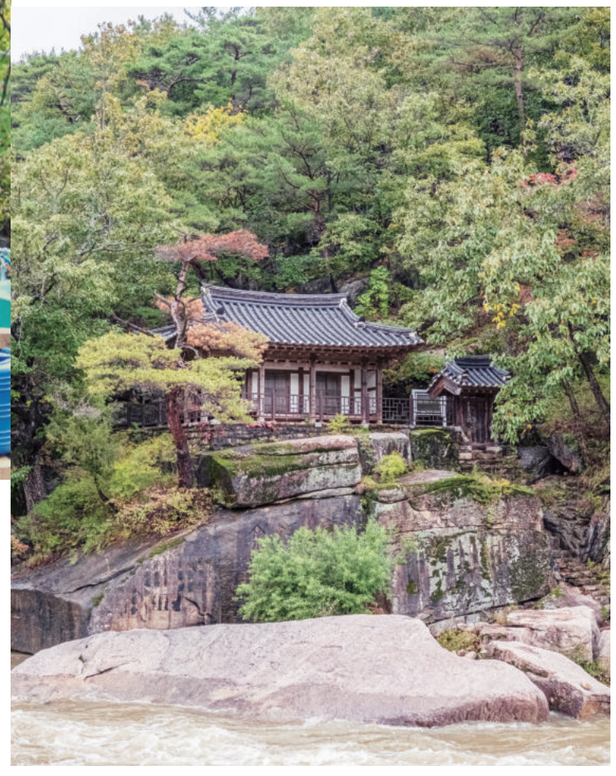
02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

괴산

숲속작은책방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도 좋지만 괴강국민여가캠핑장도 추천한다. 오토캠핑 사이트 47면(장애인 오토캠핑 사이트 3면 포함)과 캐러밴 사이트 5면, 대형 텐트 사이트 5면, 방갈로 사이트 3면을 갖췄다. 캠핑장 인근에 괴산의 별미 어죽국수를 잘하는 집이 늘어서 있다. 맑은 물에서 잡은 각종 민물고기를 넣고 푹 끓인 뒤, 면을 넣어 만든다.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제피 가루 등을 듬뿍 넣어 먹으면 콧등에 땀이 송송 맺힌다.

03



책방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괴산

충북 괴산군 칠성면 미루마을에 자리한 '숲속작은책방'은 어느 작가의 서재나 거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가정식 서점이다. 주인이 좋아하는 책 위주로 선택해 책장을 가득 채웠다. 손님은 책을 고르다가 편히 앉아서 책을 보고 주인장에게 책을 추천받기도 한다. 하룻밤 머물며 책을 읽으며 북스테이도 해볼 수 있다.

숲속작은책방의 외관은 동화책이나 일러스트 북에 등장하는 집처럼 예쁘다. 야트막한 나무 담장 뒤에는 잔디가 깔린 마당이 아담하고, 분홍색 벽에 테라코타 기와를 인 이층집이 섰다. 담장 옆에 붙은 간판이 아니면 서점인지 모를 정도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어느 작가의 서재나 거실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사방 벽에 책이 빼곡하다. 책꽂이에는 나름의 분류법에 따라 책을 진열했다. 실용서나 경제·경영, 자기 계발 분야 책보다 인문·교양서와 에세이가 주로 보인다. 환경과 생태에 관한 책, 집 짓기, 마을 만들기, 노년과 죽음에 관한 책도 눈에 많이 띈다. 판매하는 책은 대략 3,000종이다. 가정집에 문을 연 '가정식 서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책을 많이 둘 수 없으니, 부부는 좋아하는 책 위주로 선택했다. 창가 쪽에 놓인 책이 부부가 좋아하고 추천하는 책이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 동화책, 그림책, 인문학, 환경과 생태 관련 책이 많고, 모두 신간이다. 외국 동화책도 상당히 눈에 띈다. 들어오면 반드시 책 한 권은 사야 하지만, 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책을 사는 자체가 책방을 살리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침대와 책꽂이가 놓인 다락방에서는 북 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 부부가 유럽의 책 마을을 둘러볼 때, 책방 2층 숙소에서 여행객이 오랫동안 머무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괴산에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곳이 많다. 책방 여행을 마치고 화양구곡에 가보자. 구곡(九曲)은 강이 굽이쳐 흐르는 절경이 있는 계곡을 일컫는다. 괴산 화양구곡은 명승 110호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 구곡이 많지만, 괴산 화양구곡은 1곡부터 9곡까지 거의 완벽하게 원형을 유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곳이다. 화양구곡은 1곡 경천벽, 2곡 운영담, 3곡 읍궁암, 4곡 금사담, 5곡 첨성대, 6곡 능운대, 7곡 와룡암, 8곡 학소대, 9곡 파천이다.

화양구곡하면 우암 송시열을 빼놓을 수 없다. 성리학자이자 노론의 거두였던 우암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본떠 이 계곡 이름을 지었다. 화양(華陽)이란 이름만 봐도 우암이 얼마나 중국을 추앙했는지 알 수 있다.

산막이옛길은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기 좋은 길이다. 산막이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달천에 놓인 섶다리를 가로질러야 들어갈 수 있는 오지였다. 1957년 괴산댐이 만들어지면서 산막이마을은 이 물길마저 막혀버리고 말았다. 산막이라는 지명은 산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어 막혔다는 뜻. 마을 사람들은 세상과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마을과 교류하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호수와 맞닿은 산 벼랑을 따라 산길을 만들었다. 이 길이 바로 산막이옛길이다.

산막이옛길은 이 길을 걷기 길로 정비한 것이다. 칠성면 사은리 산막이마을에서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마을까지 약 4.3km의 길이다. 길 초반에는 소나무 군락이 펼쳐지고 갈수록 굴참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신갈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나타난다.

걷다 보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괴산호가 비경이다. 산막이마을까지 걸어갔다가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는 배를 이용해도 좋다. 출발점 근처 차돌바위나루와 산막이나루 사이를 유람선이 수시로 오간다.

계곡과 포구에서 만끽하는 가을의 정취, 포항

포항은 만추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다. 특히 내연산 계곡은 폭포전시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부담 없이 가을 산행을 즐기기 좋다. 계곡을 보며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데크로드와 안전펜스 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제1폭포인 상생폭포부터 12폭포인 시명폭포까지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폭포가 12개나 된다. 굳이 다 가지 않고 제7폭포인 연산폭포까지만 가도 된다. 편안한 트레킹 코스가 약 2.7km 이어지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하다. 아이와 함께 걸어도 왕복 2시간이면 넉넉하다.

하이라이트는 연산폭포다. 연산폭포 가기 전 구름다리가 아찔하게 걸려 있고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연산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연산의 빼어난 경치는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불리는 겸재 정선이 이곳 현감으로 재직할 때 '내연삼용추'라는 연작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다.

내연사 입구에 자리한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때에 지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경을 연못에 묻고 지었다고 해서 보경사로 불리게 됐다.

다음 코스는 기청산식물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원 가운데 한 곳이다. 야생화를 비롯해 토종 들풀, 수목, 각종 꽃 등 총 2,500여 종의 식물이 자란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이다. 1970년대 초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대형 상설시장으로 규모가 커졌다. 지금은 2,000여 점포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시장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김, 파래, 매생이부터 상어, 고래고기까지 동서남해안에서 나는 거의 모든 수산물이 거래된다. 생선을 실은 손수레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것이 아니다.

죽도시장 앞으로는 포항운하가 흐른다. 1970년대 초 포항제철 준공으로 물길이 막혔던 동빈내항 일대에 오염물이 쌓이면서 죽도시장까지 악취가 진동했는데, 이를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길이 1.3km, 폭 17~20m의 물길을 낸 것이다. 포항운하 홍보관에서 출발하는 포항운하 크루즈를 타면 포항운하와 동해바다를 유람할 수 있다.

이왕 나선 걸음 구룡포까지 가보자.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어부들의 부지런한 모습, 생선을 손질하는 여인네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바다를 분주히 오가는 고깃배의 모습이 정겨운 곳이다.

구룡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근대문화역사거리다. 200m의 좁다란 골목 양편에 1910년대 일본인 어부들이 모여살던 적산가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특히 1938년 구룡포어업조합장을 지내면서 큰 부를 쌓은 '하시모토 젠기치'의 2층집이 눈길을 끈다. 당시 일본에서 공수한 건축 자재로 지은 이 건물은 부쓰단, 고다쓰, 란마, 후스마, 도코노마 등 일본의 건축양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지금은 근대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당시 구룡포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기도 하다. **WIN** CLASS

05

06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끝자락에 자리한 경주회식당(054-252-3363)은 자연산 도다리 물회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다. 3년 묵은 장으로 제조한 양념으로 만든다. 영일대 호텔은 포항의 가을 운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포항제철소를 지을 당시 외국의 귀빈들을 위한 영빈관을 호텔로 개방한 곳이라 아직 일반인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룻밤 묵어보는 것도 좋다.

04

— 04.
구룡포의 상징인 '상생의 손'.

— 05.
총길이가 1.3km이나 바닷길과 연결하면 8~10km인 포항운하.

— 06.
포항의 유명한 경승지인 내연산계곡의 자연폭포.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중유럽을 대표한다. 교통이 좋아 문화교류의 요지였으며, 합스부르크 왕가를 거치며 음악, 건축, 미술 등 예술을 꽃피우게 된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축복받은 자연환경과 도시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예술, 자연, 삶' 3박자가 어우러진 오스트리아로 지금 당장 떠나보자.

WORDS. 이지홍

상상하는 모든 것이 펼쳐지는 동화 속 나라
'오스트리아'

Austria

01.
비엔나 벨베데레 궁전(Belvedere palace)에
있는 미술관. 중세부터 현대까지
오스트리아 화가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02.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인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파리 오페라하우스,
밀라노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로 불린다. 유럽 제일의
규모를 자랑한다.

03.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엔나의 한 카페 풍경과
생크림이 잔뜩 올라간 아인슈페너.

유럽 배낭여행자들의 로망 <비포 선라이즈>

유럽 문화 예술을 상징하는 도시 양대 산맥이 있다면 파리와 비엔나라고 할 정도로 비엔나에서는 꼭 봐야 할 아름다운 예술 명소가 많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 비엔나 콘서트홀, 알베르티나 미술관,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벨베데레 궁전, 왕가의 여름궁전 쇤부른 궁전 등 일주일 내내 비엔나에만 머물러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많다. 하지만 로맨스 고전과도 같은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비엔나의 상징과도 같은 성 슈테판 대성당부터 찾지 않을까? 파리로 돌아가는 셀린과 비엔나로 향하는 제시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나와 함께 비엔나에 내려요'라는 명대사와 함께 인생을 바꿀만한 하루를 비엔나에서 보내게 된다. 제시와 셀린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비엔나 여행이 유행했을 정도니 비엔나에 갈 계획이라면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보고 가기를 바란다.

01

02

커피로 유명한 카페에 가보면
비엔나 커피 메뉴가 있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커피의
도시이기도 한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 비엔나
커피 본래 이름이 아인슈페너
커피이기 때문.

© Radiokafka

03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어요'

커피로 유명한 카페에 가보면 비엔나 커피 메뉴가 있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커피의 도시이기도 한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 비엔나 커피 본래 이름이 아인슈페너 커피이기 때문. 이 커피는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차가운 생크림의 부드러움과 뜨거운 커피의 쌉싸래함이 어우러지며 달달한 맛을 낸다. 한 잔으로도 3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인기 메뉴. 비엔나에서 유래하여 3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피이기에 꼭 한 번 마셔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인슈페너를 더 맛있게 먹는 법은 빈을 대표하는 초콜릿 케이크 자허토르테를 함께 먹는 것.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카페 무제움'을 들러보자. 예술가들이 사랑한 곳이자 빈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카페인 무제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 이 카페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도 나왔던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이 있으니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함께 둘러보도록.

04

'잘츠카머구트'라는 지역명이 낯설 수도 있다.
바다가 없는 오스트리아는 크고 작은 호수 76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도시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동화 속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도 모두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다.

05

04.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마을 전경.

05.
잘츠카머구트 장크트 길겐 &
장크트 볼프강.

06.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의 한 장면,
마리아가 노래하는 모습.

07.
온천 휴양 마을로 유명한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바트 이슐.

06

© Anton Ivanov

할슈타트

호수에 비친 동화 같은 마을 풍경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끌려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 켈트어로 소금을 뜻하는 할(Hal)과 마을을 뜻하는 슈타트(Statt)가 합쳐진 할슈타트는 소금 광산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잘츠부르크 중앙역에서 포스트 버스 150번을 타고 바트 이슐로 가서 542번 또는 543번 버스로 갈아타고 약 35분 정도면 할슈타트에 도착한다.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에 지정됐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할슈타트 기차역 앞에서 페리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을 가까이 갈수록 호수에 선명하게 비치는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의 풍경에 입과 마음이 절로 열리게 된다. 마을에 들어서면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며 사색에 잠기는 사람들도 있고 할슈타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마르크트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바트 이슐

바트 이슐은 불임으로 고생하던 황후가 이 온천 덕에 프란츠 요제프 황제를 낳았다고 알려지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이 찾는 휴양지가 되었다. 요제프는 매해 이곳을 찾으며 '지구상의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브람스, 슈트라우스가 이곳에서 불후의 명곡을 만들기도 했으며 여름에는 세계적 오페레타 축제가 그 선율을 이어가고 있다. 잘츠부르크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잘츠카머구트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곳에 들러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고 다시 여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장크트 길겐 & 장크트 볼프강

잘츠부르크 중앙역에서 포스트 버스 150번을 타면 50분 뒤에 장크트 길겐에 도착한다.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장크트 볼프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스트리아 부자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인구가 3천 명 정도로 작은 동네이지만 하루에 마을 인구만큼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휴양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알프스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에메랄드빛 볼프강 호수를 감싸는 수려한 산들 사이로 펼쳐지는 빈티지 케이블카를 타고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모차르트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도시 곳곳에서 모차르트와 관련된 기념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모차르트 초콜릿이 웰컴 어메니티로 제공되어 당신이 잘츠부르크에 와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어린 시절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 속에 마리아와 8남매들이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레 도레미 송을 흥얼거리게 될 것이다. 1965년에 개봉한 명작으로 영화 속 촬영지를 모두 돌아보는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도 있으니 영화 사운드 트랙에 맞춰 호숫가 저택과 그림 같은 마을, 마리아가 결혼식을 올린 성당 등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꼭 영화가 아니라 잘츠부르크 도시 자체를 감상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도레미송의 배경지로 유명한 곳이자 잘츠부르크의 상징과도 같은 미라벨 정원부터 방문해도 좋다. 잘츠부르크 여행은 도시의 정상에 있는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올라 한눈에 도심을 내려다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왜 이제 이곳에 왔을까,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땐 '잘츠카머구트'

'잘츠카머구트'라는 지역명이 낯설 수도 있다. 바다가 없는 오스트리아는 크고 작은 호수 76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곳으로는 '할슈타트'가 있는데 할슈타트가 도시 이름이라면 잘츠카머구트는 여러 도시들을 아우르는 더 큰 구역인 '도'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동화 속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도 모두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다. 잘츠카머구트를 대표하는 도시들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자 모차르트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장크트 길겐 & 장크트 볼프강', 황후의 불임치료로 유명해진 온천 도시 '바트 이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동화 속 호수마을 '할슈타트' 등이 있다. **WIN** CLASS

07

우리 좋은 것만 상상해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럴 땐 한번쯤 해보면 좋을 생각, '세상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닥친 이 시련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하늘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EDIT. 김효정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나다 씨는 깜짝 놀랐어요,
등에 날개가 한 쌍 돋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철물점 주인은 걱정 말라면서,
돈을 조금만 내면 날개를 싹둑 잘라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다 씨는 무서워서
주인이 가위를 꺼내기 전에 얼른 도망쳤답니다,

넥타이 가게 아저씨는 나다 씨를 쓰윽 보더니,
그런 날개가 있으니
아주 값비싼 넥타이를 매는 게 좋겠다며
날개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 주겠다고 했어요,

알록달록 풍선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던 아저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다 씨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여봐요, 당신은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갈색 머리의 어여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세상에나! 그 아가씨에게도 날개가 있었어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였지요,

그래요,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WIN CLASS

<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
글. 다비드 칼리 / 그림. 모니카 바렌고 / 책빛

당신의 등에 날개가 생긴다면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등에 날개가 생긴 나다 씨. 그는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회사에 날개를 달고 출근했는데 사장은 날개를 달고 일할 수 없으니 당장 뜯어버리라고 한다. 상심한 나다 씨가 길을 걷다 만난 사람들에게 '멋진 날개'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기분 좋은 상상으로 보는 내내 즐거워 질 그림책.

IBK FUND

’20년 시장 전망

주식시장

국내주식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바이오(의약품), 게임 등 소수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추가 상승 전망
- IMF의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이 주요국 두 번째 수준으로 양호하게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회복 등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 우호적

선진국주식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증시 상승 추세의 방향성은 유효하나 선진국 증시 중 상대적 상승 모멘텀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클 것으로 판단
- 유럽 경제회복기금 창설이 확정된 반면 미국은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의회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는 점,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 모멘텀이 유럽에 비해 둔화되고 있음. 또한 경기 모멘텀 역시 미국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유럽은 상승세 유지

신흥국주식

과거 신흥국 통화대비 달러가치 하락 시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에 주목. 신흥국 중에서도 경기 회복과 정책 모멘텀 및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권고

채권시장

국내채권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 소멸, 국채 물량 부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지속 등 강세와 약세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국고채 3년물(0.70~1.00%), 국고채 10년물(1.10~1.50%) 박스권 지속 전망

선진국채권

미국 국채는 단기적으로 투자매력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위험자산에 대한 헤지와 달러 보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금리 기조 속 박스권 흐름 전망

대체투자

GOLD

화폐가치 하락헤지 및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 이어지며 추가 상승 전망
-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주요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지속되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금 투자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WTI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 셰일가스 생산재개 등으로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 상승세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환율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재정·통화 부양책이 강화되며 하반기 달러약세 기조 지속될 전망

’20년 하반기 추천펀드 ONE-PAGE 리포트

투자성향 위험등급

2등급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주식형
대형주 중심의 추가 상승 전망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형
미국증시 대비 유럽증시 투자매력 부각

신한BNPP중국본토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형
양호한 중국의 경제회복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증권투자신탁 주식형
IT, 언택트 중심의 글로벌 증시 상승

3등급

IBK 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형
대형주 중심의 추가 상승 전망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 기타
달러약세와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금가격 강세 지속 전망

5등급

마이다스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 혼합형
IT, 인터넷, 바이오 업종 강세로 관련 공모주 추가 강세 전망

4등급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형
글로벌 금리 박스권 흐름 지속 전망

신한BNPP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소수 대형주 주도의 국내증시 상승

6등급

한국투자e단기채증권투자신탁 채권형
글로벌 금리 박스권 흐름 지속 전망

판매사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 **이용가능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가능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웨딩카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장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 이용가능공항 및 이용가능지역은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 · 건물명 작명제공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1544호(2020.03.27) 게시기한 : 2021.03.26 출급번호 : EV889
·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또는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2020.7월 현재)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3093호 (2020.07.29) 게시기한 : 2021.07.29 출금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